종속변수 = SUM 독립변수

돌봄교실+지역아동센터 = 학생수 + bmi(5,6학년) + 도서관수 + 지역내총생산

**[학생수]**

**[bmi(5,6학년)]**

: 평균값이어서 사용하지 못했다

#1 저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장애요인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,연세대학교,2017

https://ir.ymlib.yonsei.ac.kr/handle/22282913/160760

정부와 각종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, **특히 저소득 가정, 조손가정, 장애인가정과 같은 취약집단에서아동 비만의 증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**되고 있다(Eagle et al., 2012). **실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, 국내 기초수급 가정 아동의 평균 체질량지수(BMI)는 20.5kg/m2 로 일반가정의 19.2kg/m2 에 비해서 높았고, 비만율도 빈 곤가정 아동이 5.2%로 일반가정 아동의 3.3%보다 높았다**(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, 2013).

선행연구에 따르면, 저소득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 동에 비해 저녁 식사량은 많은 반면, TV는 보다 장시 간 시청하였고(Kim, Ham, Jang, Yun, & Park, 2014),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행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(Cho, Chon, & Kim, 2006). 또한, **저소득가정 부모는 가정의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하여 자녀의 신체 활동 프로그램 등록과 건강한 음식 구매에 제한이 있 다고 하였다**(Davison, Jurkowski, & Lawson, 2012). **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취약 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아동비만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**고 볼 수 있다.

#2 저소득층 아동 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(2011)\_한국보건사회연구원

최근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에서 비만이 높다는 보고가 몇몇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. 1998년과 2007∼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최근 분석 결과에

서 소아‧청소년(2∼18세) 비만아 비율은 1998년 9.2%(남아 10.2%, 여

아 8.1%)에서 2009년에는 11.3%(남아 14.2%, 여아 8.0%)로 여아는

정체되어 있으나, 남아에서는 증가하였다. 소아청소년비만 (2~18세)이

지난 10년간 저소득층에서 증가하여 1998에는 고소득층에서 비만도가

높아 소득 상위 25%의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6.6%였으나 2007∼2009

년 5.5%로 감소한 반면, 하위 25%에선 같은 기간 5.0%로 상위소득층

에 비하여 낮다가 9.7%로 증가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(한국비만학회,

2011).

최근 일부 2007년 어린이재단 등의 소규모 조사들에서도 빈곤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적정체중을 가지지 못하고, 비만아와 저체중아 비율이 높은 점이 지적되고, **빈곤아동의 비만 문제가 언론 등에도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**

2009년 초등학생의 자가보고 체중, 신장을 조사한 비만실태조사에서

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고,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은 양

상을 보고하였다(임희진 등, 2009).

2010년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‧중‧고교 학생의

비만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중식지원 학생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지

역의 학생들에서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.

앞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아동‧청소년비만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저소득층 아동

에서의 비만문제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

**[도서관수]**

### **#1 대전교육청, 초등돌봄교실 6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(2020.06.02)**

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, 동산교회, 우주작은도서관, 대전한빛작은도서관, 한우리 아이행복돌봄터, 모두의 에너지 자립마을 학교 등 6개 기관과 2020년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

**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**은 올해로 **2년째 실시하는 국가 시책사업**으로써 학교 밖 도서관 등 마을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

학부모에게는 지역 돌봄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개선하여 학교와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

<https://www.segyenewsagency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3832>

#2 군포시, 도서관 활용…아동 돌봄 서비스 시행([2020년 02월 20일](http://www.dreamlib.co.kr/dreamInfo/libnews_view.php?b_cate=program&no=1909#))

중앙도서관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지역 내 7개 작은도서관에서 초등 1~6학년과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.

주 5일간 하루 4시간씩(오후 2시~6시) 연말까지 시행될 이번 돌봄 서비스는 **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,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**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.

이를 위해 시는 **돌봄 활동에 투입될 강사나 봉사자의 인건비와 아이들 간식비 등을 지원하며,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수시 점검해 아동들에게 안정적·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**한다는 방침이다.

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으로 **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까지 달성할 것**으로 생각한다”며 “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해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,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

http://www.dreamlib.co.kr/dreamInfo/libnews\_view.php?b\_cate=program&no=1909

3. **지자체 및 교육청 협력의 초등 돌봄서비스**

지난해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‘**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’**은 올해 1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우수한 돌봄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했다. 공모로 선정된 9개 지자체(서울 구로구·노원구·성동구·성북구, 대전 서구, 경기 시흥시·오산시, 충남 홍성군, 전남 광양시)는 돌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, 돌봄기관 간 소통·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돌봄 기반을 구축했다.

지자체는 교육청(학교)과 협력을 통해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지역 단위의 돌봄 공급 기관을 파악하여 돌봄서비스를 연계·안내했다. **활용가능교실, 도서관·아파트 유휴공간 등 지역 공공시설**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재탄생했다.

서울 노원구는 아파트 내 유휴공간에 ‘우리동네 아이휴센터’ 6개소를 설치해 아이들의 놀이와 독서 지도 공간으로 활용했다. 서울 성동구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과 작은 도서관을 초등돌봄센터인 ‘아이꿈누리터’로 탈바꿈하고, 돌봄공동체 확산을 위해 이웃돌봄도 운영했다. **경기 시흥시는 마을학교, 공공도서관, 작은 도서관으로 나뉘는 시흥형 돌봄모델을 구성**했고, **충남 홍성군에서는 홍성초와 홍주초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해 지자체 주체로 돌봄교실을 운영**했다. 이처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 운영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.

http://happyedu.moe.go.kr/happy/bbs/selectHappyArticleImg.do?bbsId=BBSMSTR\_000000000191&nttId=9669